

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성찰

이상규

1. 현대, 사회, 현대사회 - 그 이념적 기호
2.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
3. 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 1) 기독교적 인간관의 확립
 - 2) 절대적 진리
 - 3) 기독교적 가치
 - 4) 기독교적 삶



이상규, 경북 영풍군에서 태어나 고려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수학(M.Div.)하였으며 고신대학 대학원을 졸업(Th.M.)하고 호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현재 고신대학 신학과(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1884~1984)」와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 「성경연구 입문」, 「교회사 연구의 체분제」 등이 있다.

「중세의 가을」(Herfsttij der Middeleeuwen)이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진 화란의 역사가 하이징가(John Huizinga, 1872~1945)는 1935년에 출판된 그의 또 하나의 책 「내일의 그늘 아래서」(In de Schaduwen van Morgen)라는 책에서 “우리는 광적인 세계(a world possessed)에 살고 있으며,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로 그의 글을 시작하였다.^{*)} 그가 ‘광적인 세계’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독일에서는 나치가 독일 공화정을 장악한 이후이며, 후일 제2차 대전을 주도하였던 세력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유럽의 하늘에 전운이 감돌 때를 지칭했던 함축적 표현이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5년이 못가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광적인 전쟁이 발발하였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의 스테프 지방에서부터 뉴기니아의 밀림과 사하라의 열사(熱沙) 속에서도 전투가 계속되었고 이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공할 무기가 동원된 대량 살육과 파괴적인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광적인 전쟁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는 하이징가가 표현했고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광적인 세계가 되었고, 그 광기어린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파괴된 폐허 속에서 식량, 주택, 의약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60여년이 지난 이제, 그 모든 전황은 말끔히 제거되었고 1930년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가 된 것처럼 보인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 60여년 동안에도 자연과학이나 의학의 발전, 과학의 진보는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병폐와 타락, 사회적 혼란과 부도덕 그리고 폭력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돈에 미쳐 날뛰는 물이성적 사회 현실, 폭력, 광적인 목표달성주의, 공해, 환경파괴, 이 모두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광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에 검게 타올랐던 방화, 폭력은 우리 내부에 있는 물이성적 광기의 한 단면일 따름이다.

*) 이 원고는 1991년 4월 부산 기독교 세계관학교에서 행한 강연을 간추린 것임.
1) 하우스 바르트(김재영 역), 「현대*우상, 이데올로기」(IVP, 1990), p. 10.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는 이름 그대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매일 접하는 신문지상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우리 가운데서 행해지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 빈부의 극대화, 폭력, 그칠 줄 모르는 노사 갈등, 끔찍스러운 강력범죄, 인신매매, 살인, 향락산업의 번창, 각종 공해와 오염,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곳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혹자는 이러한 광적인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냉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은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서의 위기는 다른 영역에서의 위기를 강화시켜 주고 있고 이것은 연쇄적인 상호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떤 이념적 기초 위에서 있는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의 의식과 역사현실에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를 이념적으로 주형한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1. 현대, 사회, 현대사회 — 그 이념적 기초

‘현대사회’라고 말할 때 ‘현대’란 시대구분의 한 표현으로 한 시대적 특징과 양상을 집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간적 구분인데 일반적으로 ‘현대’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후를 말한다.²⁾

물론 ‘현대’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 하는 시대구분의 문제에는 몇 가지 이견이 없지 않지만³⁾ 정치적 측면에서는 불란서 혁명(1789)에서,

2)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는 Edward McNall Burns인데, Burns의 「서구문명」(*Western Civilization*, 1941)에서 1914년 이후를 현대로 보고 이 시대적 특징을 ‘전면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칭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의 대부분이 1차대전 기간의 정신적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1914년 이후를 현대로 보았다.

3) 일례로 헤이즈(C. J. H. Hayes)같은 학자는 1870년대를 현대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는 1932년에 출판한 「현대 유럽의 정치, 문화사」(*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Modern Europe*, 2 vols.)에서 1830년대를 현대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다시 개정판을 냈을 때는 1870년대를 현대의 시작으로 정정하였다. 또 그는 1953년 출판한 *Modern Europe to 1870 and Contemporary Europe since 1870* 에서 독일과 같은 근대국가가 출현한 1870년대를 현대 유럽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상규/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성찰

경제적 영역에서는 산업혁명에서 부터 소위 ‘현대’라고 일컫는 바, 정치, 사회사적 기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대, 곧 우리 사회를 주형(構形)한 이념적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현대 사회에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사회란 인간들의 집단, 그것도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틀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공동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이념적 기초 위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풍토(Climax of Opinion), 곧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를 주형하여 온 세계관적 기초, 곧 사상적 연원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음수사원(飲水思源)이란 말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파악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사실 모든 현상을 근원으로부터(ad fontes) 파악하려는 노력은 르네상스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학문방법인데, 이것은 문제의 근원을 그 기원에서부터 천착해 보려는 노력으로써 근본적으로 모든 현상이나 사상은 역사적 발전의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현대사회라고 할 때, ‘현대’라고 하는 특징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상적 연원은 계몽주의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계몽주의란 18세기에 서구에서 일어난 중세기의 형이상학적 신앙적 권위에서 인습적으로 계승되어 왔던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거하고 이성적(理性的) 견해와 통찰, 그리고 오성(悟性)을 통한 자율적 의지 위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일련의 인간중심적 정신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6세기 이래로 15세기까지 중세 유럽을 지배하였던 중세 교회적 전통과 정신적 유산들은 중세 봉건적, 교권적 체제가 가져온 자기 해체적인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그 다음시대의 합리주의적인 철학으로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17, 18세기에 와서는 계몽주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환하였다.

계몽주의는 이전 시대의 세계관으로부터의 정신적 탈출이며 중세 기적 가치체계와 질서로부터의 전환인데, 이 세계관적 전환의 핵심은 인간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이 점을 적절히 표현한 사람은 테렌츠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6.

(Terenz)인데, 그의 격언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이 아닌 것은 나에게 낯설다.”(Homo Sum, humani nihil a me alienum puto)는 말은 계몽주의 정신의 요체를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18세기 서구에서 일어난 계몽주의는 그 특징적 성격을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인간 이성의 자율성 혹은 이성의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을 강조하는 이성론(곧 합리주의) 인간은 본래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선하며,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완전제로의 부단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 곧 낙관주의, 법 앞에서의 만인은 평등하며 신분이나 국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 낙관주의 혹은 진보사상 등은 다 계몽주의적 연원을 지니고 있고(물론 이것은 회랍사상에까지 소급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중심적이고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계몽주의적 이상은 불란서 혁명에서 현실화되었고 그 이후의 사상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되었다. 옛 서경별곡(西景別曲)에 “구슬이 돌에 부딪쳐 다 깨어진다 해도 그 구슬을 켜 줄은 남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계몽주의는 현대의 세속적 사상의 이념들을 켜는 하나의 줄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사회의 이념적 체계는 계몽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 글에서 필자는 이성의 자율성, 인간의 자기 충족적 능력을 신뢰하는 합리주의적 사상이 계몽주의의 요체이며,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 사회에 풍미하는 낙관론, 진보사상의 모체가 되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인간의 죄와 타락을 전제하지 않는 낙관론은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낙관론, 곧 인간의 실패 가능성, 혹은 타락(fallenness)을 배제하고 인간에 의한 무한한 가능성(perfectibility)을 신뢰하게 되었다.

4) 이와 같은 인간관의 문제와 제 사회과학에 관한 논의는 Earle E. Cairns, *God and Man in Time, a Christian Approach to Historiography* (Baker Book House, 1979), pp. 22~29를 참고할 것.

즉 진보사상은 낙관론적 인간관의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결국 낙관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진보사상은 미증유(未曾有)의 선과 행복, 무한한 번영의 성취를 내용으로 하는 황금시대를 꿈꾸게 하였던 바 유토피아 사상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다. 말하자면 히브리적 혹은 기독교적 진보의 개념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세속화 된 것이다.⁵⁾ 이미 볼테르(Voltaire 1694~1778)와 기번(Edward Gibbon, 1737~1794)을 거쳐 가면서 역사는 초월적 경륜이나 신(神)의 뜻에 의해 진진(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자율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성이 절대시된 낙관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진보)을 믿으며, 신국에 대한 기대를 유토피아 개념 속에 세속화 시키고 만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계몽주의를 거치오면서 짝이 튼 진보주의적 낙관론은 합리성(合理性)이 신화와 미신을 대신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폭정을 대신하며, 세계적 형제애가 증오와 전쟁을 대신하고 중국에는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도 악이 제거되고 보다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이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진보의 승배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낙관론을 공유하지 못한 역사는 이단자로 취급받기까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독교적 소망, 곧 하나님께서 시간의 종말을 선언한 뒤 그분 스스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인간의 진보가 절정에 다다를때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으로 세속화 되었는가?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5) 상식적인 일이지만 회랍과 고대 이방세계는 역사를 일련의 주기(週期)로 이해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발전적 개념이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역사의 회귀 속에는 황금시대 뒤에는 몰락과 퇴보의 시대가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역사를 선적(線的) 혹은 직선적(直線的)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잠진적으로 역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발전 진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역사에 있어서의 발전, 진보의 개념을 가졌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회랍적 순환사관의 무의미한 반복, 곧 지루한 무상성(無常性)과는 달랐다. 그러나 이런 히브리적 진보사관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세속화된 것이다.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6.

이것은 지난 2~300년간에 걸친 서구사상 속에 나타나 있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위치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적 소망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진보에 의해 이룩될 유토피아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가들은 진보에 대한 숭배를 기독교 교리와 인간 중심의 낙관론 사이에 태어난 서자(庶子, bastard offspring)라고 불렀다.⁶⁾

10여년간 전 유럽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갔던 불란서 혁명도와 같은 사상적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흔히 계몽주의와 불란서 혁명과의 관계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로 설명되는데⁷⁾ 혁명정부가 노블담 성당을 ‘이성의 신전’으로 명명하고 양가집 처녀를 ‘이성의 여신’으로 부르면서 소위 이성의 축제를 벌인 일은 상징적인 사건이다.⁸⁾

필자가 여기서 낙관론적 진보사상이 계몽주의 이래로 우리 시대의 편만한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이 진보사상이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게되는 물질 제일주의, 성장 제일주의 사상을 배태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물질 제일주의의 연원과 발전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에의 숭배’에 관해 좀 더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말의 불란서 사회 철학자 콩도르세(Condorcet, 1743~1794)는 불란서 혁명에 깊이 개입하였던 인물로서, 그는 후일에 옥사

6) Roy Swanstroun, *History in the Making* (IVP, 1982), p. 62.

7) 장일조, “불란서 혁명의 이념적 비판”, 『神學思想』 제 11집 (한국신학연구소, 1975), p. 739.

8) 이런 점에서 화란의 칼빈주의자 호른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가 불란서 혁명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이성으로의 변화, 즉 인본주의적 불신앙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47년에 쓴 『불신앙과 혁명』(*Ongel en Revolutie*)이라는 책에서 루소의 사상, 곧 근본적인 악은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있으므로 백성들의 합의에 의한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상이 혁명의 이념이었다고 분석하였다. 모든 혁명 운동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책이 나온 일년 후인 1848년에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책은 하나의 예언서가 되었다.

하였는데, 수배를 받으며 도망하는 중에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사적 개관」(*Sketch for a Historical Picture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 1795)이란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사회가 원시상태로부터 점차 발전하여 당시의 불란서 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인간 이성과 과학기술 등으로 모든 인류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였다.⁹⁾ 이러한 진보의 이상, 곧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는 19세기로 넘어 오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편만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¹⁰⁾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뉴턴(J. Newton, 1643~1727)의 만유인력의 발견 이후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진보적 세계관의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앙하게 해 주었다. 19세기의 과학승배 풍조를 잘 보여주는 학자가 어거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인데, 그는 문화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곧 신화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과학적(실증적)단계가 그것이다. 과학에 대한 신앙은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론적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진보에 대한 희망을 신봉했던 19세기 사조에 기여한 두번째 사상은 진화론(Darwinism)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야만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여 부단한 상승운동을 거쳐 보다 인간적인 상태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 내부에 있는 악한 본성도 점차 선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에서도 진보개념을 볼 수 있는데 근시안적으로 보면 약간의 어려운 시대들이 없지 않지만 세계사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계급없는 사회로 발전해 간다고 보았다. 어쨌든 진화론은 진보 이념을 뒷받침 하였다. 세번째로는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간 유럽에 대륙 규모의 전쟁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진보사상, 곧 낙관주의적 세

9) 시드니 폴라드(이종구 역) 「진보란 무엇인가?」(*The Idea of Progress*) (한마당, 1979), p. 99.

10)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의 개념”, 『고려신학보』 6집 (1985), pp. 78~79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6.

계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낙관론적 진보사상은 19 세기를 거쳐 오면서 더욱 편만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일의 신학자들과 미국의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1861~1918) 등은 소위 사회복음운동(Social Gospel)을 제창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된다고 하여 신국을 역사화(歷史化) 하여 지상천국 건설을 신봉하기에 이르렀고 내재적(內在的) 천국관이라는 세속적 유토피아니즘이 신학계를 점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보사상은 일차대전을 거치면서 일견 퇴조하는듯 하였으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신님이 쇠퇴함에 따라 진보사상은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인간관의 변화는 모든 사상적 변화, 곧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 계몽주의 이래로 낙관적인 인간관은 진보에 대한 숭배를 가져왔는데, 진보에 대한 숭배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룩될 과학과 기술, 경제적 발전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들, 곧 물질 제일주의, 세속주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 같은 신학적 유토피아니즘의 근간이 된 것이다.

2.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이상에서 말한 바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대치되는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 지성사(知性史)는 세계관(世界觀)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기독교적 소망은 진보에 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인간에 의해 지상에 세워질 유토피아에 대한 신념으로 대치되었다.

그래서 경제발전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물질 지상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배태했던 바 물질을 향한 개인의 탐욕이 합리화 되

있고 도덕, 윤리적 판단도 공리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어 행복에의 추구, 그 자체가 선으로 간주되었다.

또 자율적인 인간 이성에 기반을 둔 진보사상, 곧 유토피아니즘은 혁명적 사회변혁 사상을 배태했던 바 이것은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중심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에 풍미하는 가장 중심되는 이데올로기로, 물질 지상주의와 급진적 사회혁명 사상으로 파악한다.¹¹⁾ 사실 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준거기준(frame of reference)에 기초한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시대정신(Zeitgeist)을 공유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계몽주의 이래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물질주의 혹은 성장 지상주의(成長至上主義)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 현실에 뚜렷이 그 실체를 드러낸 때는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성장 지상주의란 이름 그대로 경제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공동체적인 인식인데,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특히 GNP의 성장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는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좀 천박하게 말하면 돈이면 제일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의 지성인들은 개항기부터 급증하는 강대국들의 침략 야욕을 보면서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자강의지를 경제적 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일제의 강점 하에서 제약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도된 일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5.16 군사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 시사해 주는 바이지만 국부(國富)의 증대, 곧 경제적 소득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

11) 고신대학의 전광석 교수는 현대 사회의 특징적 사상(이념), 혹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를 들었고 이를 한마디로 내재주의(內在主義)로 규정한 바 있다(부산 기독교세계관학교 강의안 참고, 1991년 4월)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6.

치체계는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던 공통된 소망이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열망, 곧 ‘잘 살아보자’는 성장 제일주의가 다른 가치체계로부터의 제약이나 충돌 없이 제일의직(第一義的)으로 추구된 것은 서구에서는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판단된다.¹²⁾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개항기 이래로 경제적 향상에 대한 소망은 있었으나 거듭된 좌절로 실행화되지 못했던 성장 중심의 가치체계는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국민적 소망과 민족적 의지, 그리고 현실적 힘을 가진 살아있는 가치체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서는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존 의지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권의 입장에서서는 혁명의 당위성을 피하는 명분 확보로 강조되었고 이것은 선진 제국의 자기팽창적 정치, 경제체제와 어우러지면서 물질적 부요, 곧 ‘잘 살아보세’ 철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채 물질적 풍요를 향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일체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물질 문명이 가져올 수 있는 예견되는 독소를 제거하거나 제어할 만한 정신적 무장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혁명공약 4항이 보여주는 바처럼 민생고의 해결은 시급한 현실적 과제였기 때문에 박정권의 성장 지상주의 곧 ‘잘 살아보세’ 철학은 한국 사회체제 속에 간단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전통적 유교 중심의 윤리지향적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별한 기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성장에 대한 갈망을 실제 경제의 재건과 통계수치에 의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시킨 점이다. 결국 경제성장 제일주의 이데올로기는 정부 주도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강요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1966년과 1970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59개 국가 사이에

12) 김병연, “한국 사회의 이해와 변혁을 위한 기독교적 접근”, 『새로운 지성』 제 9호(1991. 2. 1), p. 10.

이상규/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성찰

서 경제성장률 제 1 위, 수출신장률 제 1 위, 제조업 고용증가를 제 2 위를 차지함으로써 모범적 성장국이라는 국제적 칭송을 받게 되었다.¹³⁾ 결국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만능약으로 선전한 박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극빈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적 갈망은 김병연의 말처럼 “한국에 수많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곧 물질적 소비를 극대화 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인간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¹⁴⁾

그래서 성장 지상주의는 다른 모든 규범에 선행하는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었고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하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물질(경제적) 진보신앙은 한국 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재물(물질)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한국 사회에서의 물질 제일주의 사고를 더욱 확산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장 제일주의는 성장 이외의 모든 가치들을 무시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경제성장은 국가적 지표로서 다른 정신적 가치로부터의 제약이나 충돌 없이 최상의 목표로 추구되어 온 점도 그 원인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신앙하는 실체(성장 지상주의 신앙)를 절대시 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질 지상주의, 곧 ‘잘 살아보세’ 철학은 물질적 풍요 이외에 모든 가치를 먹어치워 버리는 광적인 기질을 가진 우상이 되어 인간은 수단과 방법, 동기, 과정, 목적의 윤리성이나 합법성,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이면 최고라는 극단적 사고를 배태한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 - 인신매매, 향락산업, 강력범죄, 부동산 투기, 공해 등 - 이 ‘잘 살아보세’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대를 경과해 오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적(윤리적) 기초 없는 물질적 부는 결국

13) 정윤희, “경제학에서의 민족주의적 지향”, 『한국 민족주의론』, 강만길, 송건호 편, p. 276.

14) 김병연, 앞의 글, p. 11.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6.

퇴폐와 향락과 사치, 과소비 등과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교회도 직간접으로 이 시대의 조류와 경향성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사회악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사회에 풍미하는 또 하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급진적 사회혁명 사상이다. 물질주의적 성장 지상주의가 대다수 국민과 정부관료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학생층과 재야단체 등 비교적 젊은 층에 편만한 이데올로기는 기존질서와 사회조직의 급진적 개혁을 의도하는 혁명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상의 신학적 접근이 해방신학이며,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 변용한 것이 민중신학이다. 사회혁명 사상이 근본적으로 계몽주의적 인간관 위에서 있듯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죄를 사회구조에서 찾으므로 죄의 근본적인 개념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무시하고, 구원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해방에서 찾고, 복음화를 사회정의의 실현, 인간화 운동으로 보는 낙관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있다.

이들은 인간의 죄, 타락, 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몽주의적인 낙관론적 인간관 위에서 있다. 그러므로 사회혁명 사상은 일종의 현대적 유토피아니즘이며 그 기본정신은 앞서 언급한 성장 지상주의와 더불어 진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그 나타난 현상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뿌리에서 생성된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3. 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현대(한국) 사회에 대한 이념적 연원과 현대사회를 특징지워 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독교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때, 그것은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에 대한 기독교와의 관계는 크게 3가지 유형

이 있어 왔다. 그것은 분리모델, 동일시 모델, 그리고 변혁적 모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가 그의 책 「기독교 문화관」(*The Secular Saint*)에서 명쾌하게 정리한 바이지만¹⁵⁾ 분리모델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고 역사 현실을 이원론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지니고 동일시 모델은 복음의 독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변혁 모델이 이상적 사회관을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개혁주의적 조망을 가능케 해준다고 보고 있다. 변혁모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이시며, 하나님은 성속의 이원론적 구분과 구별없이 인간세계와 자연계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점을 교회에 선명하게 가르쳐 준 사건은 종교개혁이었고 특히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왕권(Kingship)과 우주적 주재권(Lordship)이 정당하게 논구되어 왔다.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학의 갱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칼빈의 기여가 컸다. 사실 루터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고 기존질서(정치권력)에 대해 평행적 관계를 지녔지만 칼빈은 이 단계에서 진일보하였다. 루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칼빈은 하나님 중심주의(Theocentric)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신관은 인간관 사회관 등 신학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트릴취(Ernest Troeltsch, 1865~1923)는 “...(칼빈주의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사회 전체의 삶을 계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종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칼빈주의는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고 루터교처럼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처럼 몇몇 기관을 세워 두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15) 로버트 E. 웨버(이상규 역), 「기독교 문화관」, (엠마오, 1984), pp. 77~170
참고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6.

않았다”고 하였다.¹⁶⁾ 트릴취의 말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칼빈 주의자들은 사회를 성속 이원론에 따라 분리하여 이분화(Dycho-tomy)하지도 않았고 사회와 그 제도를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제도, 조직, 직업, 직위 등 질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예속된 수종자(servants)로 표현된다.

정리해서 말하면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근거와 가능성을 두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성(聖), 속(俗)의 이원론적 구분은 개혁주의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성과 속의 이원론적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아야 한다. 성, 속 이원론은 영역분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두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삶과 행동양식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종교행위를 단 순히 주일예배와 이와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며 반대로 소위 세속적 영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게 한다. 이같은 형태는 한국적 컨텍스트로 말하면 무교(Shamanism)적이다.

둘째로, 사회, 사회구조는 절대불변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세적 세계관은 우주와 사회를 위계체계적인 존재의 사슬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회조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게 되었다. 사회를 절대불변의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란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순한 개인의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틀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집

16) 이와같이 트릴취의 해석에 대해서는 특히 그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세계의 대사상, 12, 휘문출판사, 1972), pp.318~346을 참고할 것

이상규/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성찰

단이다. 또 사회란 다수의 개인들의 집합만이 아니라 ‘조직’ 혹은 ‘구조’라는 성격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조에서 오는 불의나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조직이나 세금제도 임금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고 말할 때 인간의 집단인 ‘사회는 악하다’라고 단순히 말할 정도 그 이상으로 사회는 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때는 개개인의 악들이 다 합해진 것보다 더 사회는 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설사 개인(인간)이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사회는 도덕적일 수 없는, 사회가 갖는 구조적 특성을 잘 표현한 말이다. 개인은 일면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가 도덕적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는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찰 혹은 조망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불의한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의미한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풍미하는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우즈 바르트의 말처럼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선이요, 진리요, 정의요 사랑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본래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⁷⁾ 말하자면 그것은 종교의 대체물이며 우상인 셈이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지배하고 속박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은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서 있는 모퉁이 돌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절대진리와 기독교적 가치체계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하고 기독교적 삶의 실천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비판, 개혁,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몇가지 항목으

17) 하우즈바르트, 앞의 책, p.19.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 6.

로 나누어 부연하고자 한다.

1) 기독교적 인간관의 확립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현대사회가 서 있는 모퉁이 돌이 계몽주의적 인간관이라고 할 때 현대사회의 조망은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이념, 사상, 신념체계는 어떤 형태의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는데,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인간관은 인간을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유롭고 자율적인(autonomous)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 이래 현대사회의 주된 이념은 인간관의 변화로부터 기원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도된 인간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간 타락의 신념이 쇠퇴해 감에 따라 진보이론이 점차 인기를 얻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없다.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는 바이지만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가르침(“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렘17:9)은 역사와 현실을 해명하는 기초이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성장 이데올로기나 사회혁명 사상 등이 인간 이성의 자율성에 기초했듯이 물질적 부를 소유한 이들의 퇴폐, 사치, 향락추구 등도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적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인간관의 확립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 나온다”는 하우즈 바르트(B. Goudzwaard)의 말은 옳다.

2) 절대적 진리(absolute truth)

우리 사회를 보는 또 한 가지 비판적 조망은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 사상,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야 한다. 성경에는 ‘사회’란 말은 없지만¹⁸⁾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적지 않다. 로마서 12:2 절의 “이 세대를(this age)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세대’는 ‘사회’라는 뜻이며 야고보 1:27절의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을 때 ‘세속’은 속화된 사회를 의미한다.

위의 인용들은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그 주변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평적 반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처럼 기독교 신학도 세상의 어떤(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만일 기독교 신학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화 한다면 그것은 악성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정치이론을 종교적으로 절대화할 때 수반되는 위험은 보다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이념체계(이데올로기)도 불완전하고 그 적용 또한 인간의 이기심을 반영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는

18) ‘사회’란 말이 성경에도 없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이 말은 17세기 이후 오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지만 희랍어로는 ‘정치적인 동물’(Zoon politikon)로 되어 있고 라틴어에도 사회(Societas)란 단어가 있긴 했으나 오늘날처럼 사용되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7세기 때부터 국가와 좀다른 인간의 집단, 국가의 법적인 조직 이외의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공유한 집단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계몽주의, 18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사회 과학’이라 일컫는 다양한 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있어 왔다.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6.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물질주의적 성장철학, 곧 ‘잘 살아보세’ 철학(이데올로기)을 비판하고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독교적 가치(Christian values)

이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확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세계관적 개혁을 의도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싸워야 한다. 타락이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치, 윤리적 규범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타락이란 주위의 세상과 사회와 같이 되는 동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지식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처한 사회 여건 속에서 복음적인 가치들을 자기의 지적인 활동과 관련시켜 실현해 가야 한다.

결국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는 사회에 대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 지상주의가 가져온 물질주의, 배금주의, 곧 돈의 유혹, 사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려는 노력이 어느 단계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의 물질주의가 교회에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모든 다른 가치를 삼켜버리고 모든 가치의 표준이 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일이 심화되면 복음 자체까지도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세계관, 가치관을 의미하는 말이다.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확립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비판이다.

4) 기독교적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를 조망, 비판하고 사회구조를 개혁하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